

화순군, '청년이 살기 좋은 젊은 도시' 만든다

지역 이모저모

복지·교육 등 4개 역점분야 연계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 '인기'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취업 도움



2024년 화순군 만원임대주택 입주자 추첨

/화순군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청년이 살기 좋은 젊은 도시, 화순"을 만들기 위해 민선 8기 후반기에 청년을 위한 복지·교육·일자리·문화 등 총 4개 역점분야를 연계해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

화순군의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이 올해에도 총 672명의 지원자가 몰리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총 101명의 당첨자가 9월까지 입주할 예정이다.

하반기 청년들의 주거형 취업 지원 공간으로 제공될 화순군 청년하우스는 벌써부터 많은 관심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곳은 다양한 분야의 청년 구직자들이 거주하며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화순군 청년센터와 연계하여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스타디움, 주방·세탁실 등을 공유 방식으로 제공한다.

또한 주거뿐만 아니라 결혼장려금 및 결혼 축하금 지원, 전입축하금 지원,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등 화순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청년의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중소기업 취업 장려 프로그램, 청년센터 운영 등 청년들의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미취업청년에게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통하여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특히 올해부터 지원 분야를 확대해 세무회계, 소프트웨어자산관리사 등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95종을 추가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음으로써, 원래 계획인 100명보다 훨씬 많은 212명의 청년이 참여해 상반기 조기 소진된 사업비를 올해 2회 추경에 반영하여 하반기에도 계속 연장 운영할 예정이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중소기업 취업장려 프로그램은 구직 청년 대상 및

중형 취업특강으로 취업 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해 위탁 운영 중이다. 청년 취업 역량과 중소기업 현장 탐방을 통해 청년 구직자와 중소기업 간 취업연계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다.

2022년 하반기 청년 고용률 69.6%를 기록한 화순군은 올해에도 청년을 위한 정책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 및 대기기업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규직 청년에게 4년간 1인당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화순군은 올해 상반기 25명을 지원 중이었으나, 청년들의 폭발적인 관심으로 하반기 10명을 추가 모집하여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화순군은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다양하게 추진 중이다.

청년 창업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푸드트럭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푸드트럭 개조비용 또는 시설 장비 구입비 등으로 1인당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푸드트럭 지원사업은 현재 동구리, 수만리, 세량지 3개소를 거점으로 개점했다. 청춘신작로 버스킹행사, 꽃강길 음악분수 행사, 고인돌 축제에 맞춰 청년 창업자들은 닭꼬치, 쥬러스, 계란빵 등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관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화순에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에게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지역자원 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연차별 보조금을 지원하는 청년창업지원 사업 등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를 통해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청년과의 토크 콘서트'를 개최해 청년 농업인, 소상공인, 직장인, 분야별 청년공동체, 청년협의체 등 각계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청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화순(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목포시, 관광객 2000만 유치 노력

경남도, 라이브커머스 역량강화 교육

관광객 만족도 높이기 위한
관광수용태세 확립 결의대회

목포시가 관광객 2000만시대 도약을 위해 관광수용태세 정비에 나섰다.

시는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와 관광객 수요, 외국인 단체관광 등에 대응하고 하반기 주요 행사·축제에 다녀갈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2일 목포국제체육센터에서 관광수용태세 확립 결의대회를 가졌다.

시는 하반기에 8월 27일~9월 1일 2024코리아오픈배드민턴대회를 시작으로 9월 14일 목포해상W쇼, 9월 27일~29일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10월 11일~13일 목포항구축제, 10월 18일~20일 목포문화재야행 등 대규모 행사와 축제를 앞두고 있다.

이를 대비한 이날 행사에는 목포시 관광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박홍률 목포시장, 관련사회단체 대표, 여행·식품·숙박업소 영업주 및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관광업계 대표로 대한숙박업중앙회목포시지부 임훈 지부장과 한국의 식품중앙회목포시지부 오선영 운영위원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관광객을 대하는 목포 관광인들의 마음을 한곳으로 모으는 퍼포먼스를 통해 관광인의 기본자세 실천을 다짐했다.

결의문에는 다시찾고 싶은 목포 만들기 등을 위해 ▲고객중심의 서비스 실천 ▲공정한 가격 설정 ▲철저한 위생 관리 ▲친절한 고객 응대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내달 13일까지 참여 업체 모집

경남도는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의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기획한 라이브커머스 제작 송출 지원 사업과 라이브커머스 역량 강화 교육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내달 13일까지 모집한다.

라이브커머스는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 판매자가 실시간으로 고객과 소통하며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서비스다.

경남도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상품을 보유한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영상 제작 송출을 희망하는 업체 10개사를 모집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라이브커머스 송출 영상 제작을 위한 방송 연출, 쇼호스트 섭외, 장비 세팅 등 전반적인 지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누리집.

원을 한다.

제작된 영상은 10월 중 네이버 쇼핑 라이브 채널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지원 기업당 1시간 이내 최대 3개 상품까지 홍보할 수 있다.

도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라이브커머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참여 업체도 20개사를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모집한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곡성군, '지역특성 살리기' 예산 18억 확보

구미~군위 고속도로, 예타성조사 대상 선정

행안부 주관 사업 선정

전남 곡성군이 정부 주관 '지역특성 살리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곡성군은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주관한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8억 원을 확보했다.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해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 전남에서는 곡성군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곡성군은 1차 로컬브랜딩 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 발굴 및 중장기 특화계획을 수립했다.

섬진강기차마을 관광객의 읍 시가지 유입을 위해 '생활인구 맞이쇼'를 구축하고 문화체험 및 창업 예비자 지원을 위한 '로컬 창작소'도 조성한다.

또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최장 1년간 상점 시범 운영이 가능한 '팝업스토어'를 마련하고 거리 경관 개선 사업 등도 추진한다. /곡성(전남)=양수영 기자

연장 21.2km, 총 1.4兆 투입

경북도가 계획하고 있는 구미~군위 고속도로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4년 제6차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열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6개 사업을 선정했다.

여기에 고속도로는 유일하게 구미

~군위 고속도로가 반영됐다.

구미~군위 고속도로는 연장 21.2km, 총사업비 1조4965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가교통망으로 구미시에서 시작해 군위 분기점을 연결한다.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기존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영천고속도로가 연결돼 대구경북신공항의 접근성이 완성된다. /경북=나영조 기자 ray6061@

청도군

친환경우렁이쌀 '진옥' 벼 첫 수확

경북 청도군이 왕우렁이를 이용한 친환경 쌀재배 단지에서 벼 첫 수확을 지난 24일 시작했다.

이날 수확한 친환경우렁이쌀은 조생종인 '진옥'벼로 지난 5월 5일 모내기를 한 후 120일 만에 하는 첫 수확이다.

이번에 수확된 '진옥' 품종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육성한 고품질의 도열병 저항성 품종으로 조기 재배에 적합하고, 쌀알이 맑아 외관 품위가 좋으며 우수한 밥맛으로 알려진 품종이다.

약 3ha에 면적에서 5일간 수확된 벼는 건조기에서 30시간 건조 후 하루 동안 열기를 식혀서 도정공장으로 보내진 후, 지역농협의 수매와 계약재배를 통해 명절 선물용으로 전량 판매될 예정이다. /청도(경북)=나영조 기자

산청군

중소·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산청군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육성자금은 2024년도 하반기 70억원 규모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대출과 금융기관 자체 신용·담보대출 등 두 가지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산청군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매출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은행 여신 규정상 상환능력을 갖춘 사업자로 융자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오는 9월 5일까지 신청가능하다.

융자 한도액은 업체의 매출 및 자본금 규모에 따라 최대 5억원으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조건이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부산시

세계지질과학총회, 韓 최초 개최

부산시가 오는 31일까지 벵스코에서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를 개최한다.

세계지질과학총회는 전 세계 지질과학자들이 모여 학술 발표와 전시회 등 다양한 학술 행사를 펼치는 행사로, 세계 지질 과학자들의 대축제로 불린다. 4년마다 대륙을 순환하며 열리고 있다.

이번 총회는 1996년 중국 이후 동아시아에서 28년 만에 열리며,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것이다.

3000여개의 학술 발표와 200여개의 전시회를 통해 지구의 다양한 지질학적 측면을 조망할 계획이다. 또 시민들을 위한 영화제, 전시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운영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신안군

섬 향기 담은 꽃차 6종 선봬

전남 신안군이 신안의 섬 향기를 담은 6종의 차를 출시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꽃차는 신안 섬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핀 꽃으로 따서 지도 선도의 마리골드, 증도 병풍도의 맨드라미, 자은도의 목련꽃, 비금도의 해당화, 도초도의 수국, 안좌도의 팬지꽃 등 6종이며,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찌고 뒤었다.

이는 신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1섬 1정원', '사계절 꽃 피는 섬' 등의 사업과도 무관하지 않다. /신안(전남)=황세훈 기자 pinksea97@